

세계최고의 학부 소프트웨어 교육 학과로 !!!

소프트웨어 설계·경영학과 학부모 간담회

【조선일보(6월 26일자 A25면)】



▲ 25일 경원대 공과대학에서 김원(왼쪽 끝) 교수가 학부모를 초대해 학과의 방침과 교육 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준현 기자 heon@chosun.com

6월 25일 학부모 간담회가 개최되었고,
그 다음날 조선일보에 기사화 되었다.

세계최고의 학부 소프트웨어 교육 학과로 !!!



김 원 부총장(학과장)께서 소프트웨어 설계 경영학과의 첫 학기를 마무리 하면서,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학생 교육과 지도에 대해 대화의 장을 열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셨다.

세계최고의 학부 소프트웨어 교육 학과로 !!!



학부모 간담회에 많은 부모님께서 참석하셔서, 강의실을 꽉 채워주셨다. 김 원 부총장님께서 한 시간 동안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진 학과 교육 및 앞으로의 계획 및 비전에 대해 설명하셨다. 주요 내용은 철저한 전공교육, 봉사를 통한 인성교육, 우수 산업체와의 방문 교육의 의미 등의 내용이었다.

세계최고의 학부 소프트웨어 교육 학과로 !!!



김원 부총장님 (학과장) 께서
말씀이 끝나신 후, 학부모님의
질의에 대한 답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한 시간 넘게 진행되는 동안
매우 진지하고 열중한 시간이
되었다.

간담회 종료 후 저녁 식사를
대접해 드렸으며,
이 시간동안 학과 교수님들과
대화의 시간이 이어졌다.



【조선일보(6월 26일자 A25면)】

“대학생들을 고3 때처럼 교육” 학부모 초대해 강단 선 교수님

경원대 김원 부총장

25일 오후 5시 경기 성남시 경원대학교 새롭관 6층 강의실에서 김원(62) 교수가 학부모, 학생 등 40여명과 마주 앉았다. 김 교수가 “IT(정보 기술)분야의 치열한 경쟁에서 30년간 승리한 (저의) 비결은 미국 유학 시절 밤새면서 한 ‘스파르타식’ 공부였다”고 하자 학생·학부모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MIT(매사추세츠 공대)식 인재 만들기’란 간담회에 나온 이들은 올해 신설된 소프트웨어설계·경영학과 1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다.

이번 간담회는 학과장이자 부총장인 김 교수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김 부총장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

(MIT)를 졸업한 뒤 미 일리노이대에서 전산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어 컴퓨터회사인 미 IBM에서 근무하다 창업해 14년간 소프트웨어 회사 등을 경영하다 2004년 귀국해 삼성전자 고문, 성균관대 교수를 지냈다. 지난해 ‘글로벌 IT인재를 키워달라’는 경원대 요청을 받고 이 대학에 스카우트돼 왔다.

김 부총장은 지난 18일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학교, 학부모, 학생 간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된다’며 간담회를 요청하는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보냈다. 학과생 47명 중 30여명의 학부모가 참석 의사를 밝혔다.

간담회에서 김 부총장은 “현장에서 필요한 건 실무경험과 전공에 대한 깊은 지식”이라며 “‘스파르타식’ 교



25일 경원대 공과대학에서 김원(왼쪽 끝) 교수가 학부모를 초대해 학과의 방침과 교육 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준현 기자 heon@chosun.com

육을 위해 교수들이 앞장서서 축제나 MT(단합대회) 등 ‘캠퍼스 낭만’에 대한 유혹을 차단하겠다. 수업에 1초만 늦어도 결석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학과 학생들은 신입생이지만 1학기에 벌써 3개의 전공수업을 듣고 있다. 전공수업은 영어로 진행되며, 하위 30% 학생들은 방학 중 2주간 보충 수업을 들어야 한다. 김 부총장이 “졸업생 절반 이상이 국내 일류기업에 취업하고, 장학생으로 미국 내

랭킹 30위 안의 대학원에 진학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하자 학부모들이 박수를 쳤다.

학생 김윤경(20)씨는 “고3 때처럼 공부하고 있지만 지금 하는 공부가 평생 나의 비밀병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오광석(52·사업)씨는 “대학생들이 많이 노는 것 같아 걱정했는데 다행”이라며 “부모 입장에서 참 든든하다”고 밝게 웃었다.

양모듬 기자 modyssey@chosun.com

간담회 개최 다음날인 6월 26일 조선일보에 관련 내용이 기사화 되었다.

기사의 제목은 “대학생들을 고3 때처럼 교육” 학부모 초대해 강단 선 교수님 이다.

특색 있는 학과의 방침과 교육 방향에 대해 언론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6/26/2010062600022.html